

# 마르크제, 그 해방의 미적 프로젝트

변상출  
(대구대학교)

무한히 깊은 우주의 공간에는 신의 반짝이는 사유이자 축복받은 도구이기도 한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있다. (...) 이 모든 별들은 행복하다. (...) 이 별들 가운데 이 운명을 공유하지 않는 별이 딱 하나 있다. 이 별에는 인간만이 서 있을 뿐이다.!)  
- 에곤 프리델(Egon Friedell)

## I. 해방의 길을 찾아서

밤하늘의 별은 꿈과 희망을 말할 때는 해방의 미적 감성을 일깨우는 촉매가 되기도 하고, 억압에 시달린 서러운 가슴을 달랠 때는 따뜻한 신의 눈길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우주의 별을 잃어버렸다. 아니 별은 예전처럼 무수히 많지만 그 별을 바라볼 ‘토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렇다면 문제는 창공의 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별일 것이다. 우리의 별에서는 물질이 신이 되어 온통 우리를 관리하고 지배하면서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꼴을 취하고 있다. 이 물질의 세계는 별의 ‘관념’을 쫓는 것은 위험하며,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경계했던 ‘물신숭배(Fetischismus)<sup>2)</sup>

---

1) Egon Friedell: Kulturgeschichte der Neuzeit, München 1960, S. 3.

2) Karl Marx: Das Kapital, MEW 23, Berlin 1987, S. 87.

가 ‘행복’을 보장한다는 환영의 아우라(Aura)를 형성한다. 여기서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의 지도가 되었던 시대” 그리고 “그 길을 흰히 밝혀 주던 시대”<sup>3)</sup>를 말하는 것은 낡은 유물론 시대의 향수에 불과하다. ‘속도전’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는 ‘좋았던 옛 시절’의 모든 것을 향수로 돌리거나 그 향수마저 망각하게 만든다. ‘망각!’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핵이 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sup>4)</sup>

오늘 우리는 나날이 변모하는 기술혁신의 아우라에 의해 어제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쉽게 망각한다. 어제 소중했던 것을 오늘 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계장치들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해방의 기제로 쓰였던 개념들, 이를테면 주체·민족·계급·해방·총체성 따위와 같은 개념들 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망각전술’에서 보자면, 이들 개념들은 동·서 냉전의 시대애나 어쉴릴 법한 것들이고, 냉전의 벽이 무너진 오늘 탈영토화의 시대, 즉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는 낡은 유물론의 유산일 뿐인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의 다양한 담론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sup> 분명 맞는 말이다. 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은 긴장을 촉발하지 못할 뿐더러 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탈영토화가 전면적 지배로 표상될지라도 과연 오늘 우리는 주체·민족·계급 따위의 개념을 포기할 만큼 주체와 민족이 자기 결정적이고, 지배

3) Geor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Darmstadt/ Neuwied 1971, S. 21.

4) 슈미트(B. Schmidt)는 ‘포스트모던’의 핵심적 특징을 ‘망각’이라고 규정한다.

Vgl. Burghart Schmidt: Postmoderne-Strategien des Vergessens, Darmstadt/ Neuwied 1986. 우리의 가까운 현실에서 ‘망각’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랜드’·‘용산 참사’·‘쌍용 자동차’ 등과 같은 비극적 사태일 것이다.

5) 물론 이는 딱히 오늘날의 탈현대 이론가들만이 주장한 말은 아니다. 브레히트(B. Brecht)와 같은 유물론적 이론가조차도 이미 1938년에 『표현주의논쟁』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수단을 요구한다. 현실은 변화한다.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묘사방법도 변해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노쇠하여 자연적으로 힘을 잃게 되어 죽어버린 후에, 간단히 형식들을 물려받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B. 브레히트: 『루카치에 대한 반론』,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역, 실천문학사 1985, 138쪽, 146쪽 참조.

/ 피지배 관계의 모순이 탈영토화 이전보다 완화되었는가, 그리고 이 속에 살고 있는 각 주체들은 그 이전보다 더 해방되었는가 하고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물음에 선뜻 ‘긍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탈영토화는 세계의 민중들을 ‘이주노동자’라는 ‘유목민’으로 만들어 놓았고, 국제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국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거대한 세계자본의 유동방향에 따라 특정 국가와 민족의 경제가 위기를 맞기도 한다. 세계자본은 ‘노동의 유연화’를 그 유동방향의 지표로 삼는다. ‘노동의 유연화’는 단순히 유목민과 비정규직을 확대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체제’ 순응을 ‘시대정신’으로 삼게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 ‘해방’은 대단히 위험한 관념일 뿐이고 ‘생존’ 그 자체가 “생사를 건 투쟁 Kampf auf Leben und Tod”<sup>6)</sup>이 된다. 말하자면 ‘생존’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눈치껏’ 살아남는 생물학적 ‘생존 본능’에 충실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셈이다. 이는 일찍이 아도르노(Th. W. Adorno)가 『계몽의 변증법』의 <문화산업>에서 “순응하지 않는 별종은 경제적 무능상태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정신적 무력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로부터 부과된 도덕을 지배자들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sup>7)</sup> 된다고 경고한 예고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런 현주소에서는 인간해방의 불빛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 벤야민(W. Benjamin)이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카누의 법칙)를 통해 미래로 더 잘 나아갈 수도 있다. 그는 『역사철학테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과거의 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 어떤 위험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떤 기억을 붙잡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그런데 지금·이곳에서 자본주의의 세계적 두뇌들조차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지속 가능한

6)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Werke 3, Frankfurt/ M. 1970, S. 149.

7) M. Horkheimer/ Th.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M. 1969. S. 120.

8) W.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1983, 345쪽 이하.

자본주의'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현실이 '위험한 순간'에 와있음을 반증한다.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결을 거슬러"<sup>9)</sup> 탈현대적 '망각'의 강을 건너 "죽은 자들을 불러 일깨우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는 다시 결합시키고 싶어"<sup>10)</sup> 하는 천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3M'(Marx · Mao · Marcuse)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는<sup>11)</sup> 마르크제(H. Marcuse)는 기억의 해방 가능성을 두고 『일차원적 인간Der eindimensionale Mensch』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의 기억은 위험한 통찰을 낳을지도 모르고, 기성사회는 기억에 있는 파괴적 내용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기억이란 주어진 사실로부터 분리되는 하나의 양식이고, 극히 짧은 순간이라도 주어진 사실의 전능한 힘을 파괴하는 '매개'의 일종이다.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공포와 희망을 환기시킨다."<sup>12)</sup>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예컨대 '공포'는 군부대 안에서 '금서목록'이 나돌고, 군정보원의 민간사찰이 부활되고 있는 등에서 '87년 민주화' 이전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희망'은 대중들의 자발적 현실참여가 '87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다. 이 '공포와 희망'이 마르크제의 <인간해방의 미적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하는 현실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늘 21세기 이곳의 현실은 20세기 후반, 마르크제가 말하는 철저한 억압을 기초로 하는 '일차원의 세계'와 크게 동떨어져

9) 같은 책, 347쪽.

10) 같은 책, 348쪽.

11) 현대의 '3M'으로 마르크제를 포함시킨 인물은 '68운동' 때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SDS: Sozialistischer Deutscher Studentenbund)의 지도자였던 루디 두취케(Rudi Dutschke)였다. 두취케는 반전운동의 한 연설에서 마르크제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만약 적들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그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들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리크 알리(Tariq Ali)/ 수잔 왓킨슨(Susan Watkins):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안찬수/ 강정석 역, 삼인 2001, 85쪽 참조.

12) H. Marcuse: Der eindimensionale Mensch, Neuwied/ Berlin 1967, S. 117. 이하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본문 속 괄호에 약어 EM.으로 표기하고 인용 쪽을 병기함.

있지 않아 보인다.

## II. ‘일차원의 세계’와 욕망

마르쿠제는 자신의 이론적 토양이 되었던 선진산업자본주의 사회를 ‘일차원의 세계’로 규정한다. 그는 이 ‘일차원적 세계’의 특징을 “증대하는 생산성과 증대하는 파괴와의 결합, 전멸의 위협을 수반하는 도박행위, 사상과 희망과 공포가 현존하는 권력의 결정에 좌우되고 있는 상태, 전례 없는 풍요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EM. 15)로 요약한다. 이 요약에 따르면 선진산업사회가 “한층 풍요해지고 거대해지며 살기 좋아지는”(EM. 11)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순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순관계의 지속은 억압에 기초한다. 물론 이때의 억압은 인간의 “관념과 목표를 지배적인 체제에 의해 강요하는 관념·목표와 통합시켜서 체제 속에 끼워 넣는 것, 그리고 체제와 조화되지 않는 관념과 목표를 배제하는”(EM. 33) 강대한 힘의 정황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아도르노의 어법을 빌리면 “개인을 미리 결정하는 빈틈없는 총체성”<sup>13)</sup>이 지배하는 “관리되는 사회”<sup>14)</sup>이다. 그러나 그 관리와 억압의 방법은 “기술적 합리성(technologische Rationalität)”<sup>15)</sup>(EM. 19)을 수반하여 ‘관념과 목표’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부드러운 조작(die milde Manipulation)”<sup>16)</sup>으로 실현된다.

13) Th. W. 아도르노: 『부정변증법(Negative Dialektik)』, 홍승용 역, 한길사 1999, 418쪽.

14) Th. W. 아도르노: 『美學理論』, 홍승용 역, 문학과지성사 1985, 363쪽.

15) 마르쿠제는 ‘기술적 합리성’을 수반한 현대적 억압 방식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사회적 통제의 보편적 형태는 새로운 의미에서 기술적이다. 확실히 생산과 파괴 기구의 기술적 구조와 능력은 근대를 통하여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 복종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 현대에는 (...) 기술적인 통제가 모든 사회집단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반박도 불합리하게 보이고, 어떤 반대도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문자 그대로 이성을 구현하고 있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다.”(EM. 29)

16) G. Lukács: Schriften zur Ideologie und Politik, Peter Ludz(편), Darmstadt/Neuwied 1967, S. 705. 루카치는 이 글에서 현대사회를 두고 ‘조작체제

이러한 ‘일차원의 세계’에서는 자유조차 관리되는 자유일 뿐이다. 이때의 자유는 자신의 순수한 내적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과된 자유’일 뿐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마르쿠제는 이렇게 진단한다. “개인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여지는 인간적 자유의 정도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개인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실제로 선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결정적 요인이 된다.”(EM. 27)<sup>17)</sup> 이런 ‘부과된 자유’, 즉 ‘타율적 자유’는 인간의 욕망구조에서 ‘억압적 욕구’인 ‘그릇된 욕구’를 욕망하게 한다. 그 효과는 소비와 기호의 동일화(Identifizierung)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광고에 나오는 대로 휴양을 취하고 놀고 행동하고 소비하고 싶어 하고, 또한 남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기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다는 흔히 볼 수 있는 욕구들”(EM. 25)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와 기호의 동일화는 대중 통제를 효율적이게 한다. 이 효율성은 곧 순응체제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남들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비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은 곧 ‘경제적 무능상태’를 증명하는 것처럼 되고, 그것은 또 ‘주류’에 순응하지 못하는 ‘별종’처럼 취급되기 때문이다.<sup>18)</sup> 그래서 ‘동일성’의 동의어가 되는 자본의 ‘신분증Identification’을 얻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고역과 고통에 무한히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그릇된 욕구’ 혹은 ‘억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도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일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sup>19)</sup>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의 이 욕구가 성취한 성과

---

Manipulationsystem’를 말하면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조작을 ‘부드러운 조작’, 과거 동구사회주의의 방식을 ‘난폭한 조작brutale Manipulation’이라고 말한다. 조작의 관점에서는 아도르노와 마르쿠제를 위시한 ‘비판이론’과 루카치가 만나는 지점이 되는 듯해 자못 흥미롭다.

- 17) 최근 국회에서 한바탕의 ‘소동’을 거치고 통과된 ‘문제’의 미디어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TV를 처분하거나 보지 않을 ‘선택의 자유’의 폭은 비좁기만 할 뿐이다.
- 18) 이런 의미에서 ‘동일성의 욕구’는 ‘억압적 욕구’와 맞닿는다고 볼 수 있다.
- 19) 노동과 ‘일자리의 창출’이 오늘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처럼 노동을 ‘숭배’한 역사는 근대의 산물로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

는 “이 마비를 경감시키는 갖가지 기분전환”(EM. 27)으로 다시 소비된다. 이로써 억압을 생산하는 ‘공장’은 부단히 가동되고 ‘억압적 욕구’는 무한히 재생산된다. 결국 ‘그릇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는 ‘억압적 욕구’에 포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이 점에서 모든 상품에는 ‘억압’이 감춰져 있는 셈이다. 이는 ‘사물화Verdinglichung’의 전형이다.<sup>20)</sup> 이 사물화의 형태에서는 고통이나 억압적 욕구를 보는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 실내에 2층 계단이 달린 주택, 부엌 살림살이 등에서 자기의 혼을 발견한다.”(EM. 29: 강조는 필자) 이로써 사회적 통제는 바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욕구 속에 안전하게 닿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을 형성하는 사물 속에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사물의 법칙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일용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경우 ‘속물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이로써는 ‘소외 상태’를 인지할 수도 없다. 여기서는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의도했던 ‘소외된 노동’의 극복은 요원할 뿐이다.

한편 사회적 통제가 인간의 ‘욕구’ 속에 닿을 내린다는 것은 통제장치가 ‘생물학적’ 차원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승화’된 욕구는 ‘자기의 혼’이 되어 “일차원적 사고와 행동의 한 가지 패턴ein Muster eindimensionalen Denkens und Verhaltens”(EM. 32)을 만들어낸다. ‘일차

---

로부터 중세까지만 해도 ‘노동’은 기피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 숭배’는 좌파에게든 우파에게든 형이상학처럼 통한다. 악셀 브라이히의 말을 빌리면, “노동숭배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정신을 가진 형제인 셈이다.”(악셀 브라이히Axel Braig/ 울리히 렌츠Ulrich Lenz: 『일 덜 하는 기술 Die Kunst, weniger zu arbeiten』, 변상출 역, 문화과학사 2003, 137쪽) 이러한 현대적 ‘노동숭배’에 반기를 든 폴 라파르그(Paul Lafargue)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정신을 타락시키고 육체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어떻게든 하루 3시간 이상 일하지 말고” “인권보다 수천 배 더 고상하고 더 성스러운 게임의 권리를 선언할” 것을 권고한다.(Paul Lafargue: Das Recht auf Faulheit, Berlin 1991, 11쪽 이하 참조.) 물론 ‘3시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절대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현명한’ 경제학자의 몫일 것이다.

20) 루카치의 ‘사물화’개념에 따르면, 사물화의 구조 속에서는 “탄생의 고통이 더 이상 혼적조차 보이지 않게 된다.” G.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Georg Lukács Werke, Bd. 2, Darmstadt/ Neuwied 1977, S. 269.

원적 사고'의 유형들은 이 사회에 '동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신경질·무기력"(EM. 29)의 표현일 따름이고, "정해진 태도와 습관"에 따라 "지적·정서적 반응"(EM. 31-32)을 일으키는 것이 "행복한 의식"(EM. 103)이 되며, "기존의 언설과 행동 세계를 초월하는 관념·원망·목표는 배척"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자유'는 자유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기능하고 있는 여러 제도로서, 그 밖의 초월적 자유의 양태는 (...) 아나키즘"이거나 "프로파간다"(EM. 34)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며, 기성의 제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화를 조달해줄 것"(EM. 98)이라는 '행복한 의식'의 신념을 갖고 "체념과 고역은 만족과 기쁨의 전제조건이라는 것,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선택 가능성은 유토피아적이라는 것"(EM. 160)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차원적 사고 유형'의 결과, 그 행동의 양태는 "모방 Mimesis"(EM. 30)을 통한 사회적 순응이다. 물론 이러한 모방의 효과는 순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물학적 유형을 길러낸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주체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말로 표현된 것이 그것을 말할 개인의 표현인 '동시에'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사람들의 표현 '이기도' 하며, 또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긴장 또는 모순의 표현 '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하는 동시에 그것은 그들의 주인·보호자·충고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EM. 207-208)<sup>21)</sup>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화의 '모방' 욕구는 현대적 생산기구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다. 이 생산기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능·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소망까지도 결정할 만큼 '총체적totalitär'이다. 이에 따라 기술적인 사회는 이미 기술의 개념과

21) '주인'의 말을 대신해 보이는 예술적 표현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프란츠 카프카(F. Kafka)의 『성Das Schloß』과 『변신Die Verwandlung』일 것이다. 예컨대 『성』의 주인공 K.를 맞으러 나오는 성내 사람들은 항상 성의 '주인'의 말을 대신하며,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들은 잠자를 대할 때 '사회적 욕구'를 대변해서 말을 한다. '말'을 통해 현실의 '긴장'과 '모순'을 표현한 작품으로는 최근의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P. Süskind)의 『좁머씨 이야기Geschichte von Herrn Sommer』의 한 대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설 전체에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좁머씨가 단 한마디 내뱉는 말,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둬!"는 현대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반어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지배의 체계가 된다.<sup>22)</sup> 말하자면 현대의 선진산업사회 안에서는 이미 생산기구에까지 ‘총체적’ 지배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sup>23)</sup> 이 공식대로 하자면, 이러한 생산기구에 복무하는 일 자체가 지배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입은 현대인에게 거의 ‘조건반사적’ 일 만큼 자연스러운 일로 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를 빌어 “파괴적인 힘과 억압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EM. 27) 지금·여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카프카의 『심판Der Prozeß』의 한 장면, 즉 “작은 발들로 끈끈이 막대에서 떨어져나가기려고 애를 쓰는 파리”<sup>24)</sup>의 모습만큼이나 초라할 뿐이다.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sup>25)</sup>

### III. ‘새로운 감성’의 혁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제는 이렇듯 ‘악무한’의 지배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일차원적 인간’ 세계의 막힌 공간 한가운데서 그 탈출구를 모색한다. 그 전략은 내부로부터 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때 그 와해의 수단엔 기성의 ‘물리적’ 폭력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다. 그것은 소리 없는 변화, 즉 인간 본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감성’의 혁명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상하는 ‘거대한’ <해방의 미적 프로젝트>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궁극목표는 삶 자체가 예술이 되는 ‘미적 세계’의 건설이다. 이 세계에서는 기술이 예술이 되고, 또 이 예술이 현실이 되는 경향을 갖는다.<sup>26)</sup>

22) 예컨대 19세기 초에 보급된 전기와 시계는 인간의 노동을 사시사철 주야로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능력을 시계의 박자에 맞추도록 예속했던 것이다.

23) EM. 18쪽 참조.

24) F. Kafka: Der Prozeß, Frankfurt/ M. 1946, S. 191.

25)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의 ‘일차원적 세계’가 구성하는 사이클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 것이다. 1) ‘기술적 합리성’과 물질적 ‘풍요’의 파괴적인 힘에 근거하여 ‘억압적 만족’을 생산하고, 2) 이 만족을 통해 ‘일차원적 사유’에 기초가 되는 ‘부정의 힘’을 망각케 하여 ‘일차원적 사유’를 ‘행복한 의식’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3) 현실에 순응하는 ‘일차원적 인간’을 부단히 양성하며, 4) 기존의 지배질서를 존속시키면서 ‘억압적 만족’을 재생산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마르쿠제가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일차원적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릇된 욕구’의 해방이다. 그에 따르면 이 욕구는 ‘제2의 본성’을 이룰 만큼 생물학적 진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 “소유와 소비 그리고 상행위에 대한 욕구, 대중들에게 공급되거나 떠넘겨진 기구, 장치, 기계, 엔진 등을 끊임없이 새것으로 바꾸려는 욕구, 자기 파괴의 위협에 직면해도 그러한 상품들을 사용하려는 욕구는 바로 (...) ‘생물학적’ 욕구가 되었다.”<sup>27)</sup> 이런 관점에서 마르쿠제는 자신의 해방 프로젝트의 ‘최고 목표’를 ‘그릇된 욕구’를 ‘참된 욕구’로 바꾸는 것과 ‘억압적인 만족’을 폐기하는 것, 즉 ‘일차원의 세계’가 은연중에 양성한 ‘생물학적 욕구’를 뒤집는 ‘새로운 감성’의 혁명에 둔다. 이는 곧 친근한 것과의 단절, 즉 “사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틀에 박힌 방식과의 단절”<sup>28)</sup>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해방이라는 마르쿠제의 프로젝트는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관념론에 가깝고,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물구나무선 유물론’처럼 생경한 ‘감성’을 자극하는 듯하다.<sup>29)</sup> 실천적 관점에서 관념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참된 욕구이고 무엇인 그릇된 욕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스스로 답을 내야 할 것”(EM. 26)과 같은 ‘주관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이런 개별성에 따를 경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26) H. 마르쿠제: 『해방론An Essay on Liberation』, 김택 역, 울력 2004, 44쪽 참조.

27) 같은 책, 26쪽.

28) 같은 책, 17쪽. 이를 라캉(J. Lacan)이나 지젝(Slavoj Žižek) 식으로 하면 ‘상징질 서로부터’ 한발 벗어나 세상을 뼈뼉하게 보는 자세가 될 것이다. 또 들뢰즈(G. Deleuze)의 표현으로 하면 ‘탈주’가 될 것이다.

29) 이런 결과는 아마도 하우케 브룅크호르스트(Hauke Brunkhorst)의 지적처럼 마르쿠제가 유물론과 관념론의 결합을 모색한 것에서 기인한 듯하다. H. Brunkhorst: Marcuse zur Einführung, Junius 1990, 7쪽 이하 참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마르쿠제의 ‘새로운 감성’의 해방론은 유물론적 인식론과 관념론적 실천의 결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30) 아도르노도 욕구들이 ‘참과 거짓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지만, “올바른 것을 원하는 사상”이 ‘참’이라고 말하는 것(Th. W.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Negative Dialektik』, 앞의 책, 161쪽 참조)에는 ‘주관주의’가 침투할 여지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얼마나 좋을까!”하는 단순한 해방의 염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통 유물론에 익숙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모든 의식적 활동의 상부구조는 토대(생산관계)의 반영이므로 의식의 변화를 통해 토대의 변화를 꿈꾸는 것은 ‘계급투쟁’을 포기한 반혁명적 몽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한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였던 폴란드 출신의 코와코프스키(L. Kołakowski)와 같은 인물도 마르쿠제의 ‘새로운 감성’의 해방론을 두고 계급투쟁뿐만 아니라 과학 및 과학주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비합리적 형태의 낭만적 무정부주의의 예언가”로 처리한다.<sup>31)</sup>

그러나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규정했던 테제, 즉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sup>32)</sup>는 ‘의식/존재’의 테제를 생기 없는 교조주의적 칼날로 단번에 정리하지 않고 생생한 인간 주체의 적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읽는다면, 인간 ‘본성’의 변화라는 마르쿠제의 해방 프로젝트는 딱히 관념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마르쿠제의 유물론적 입장은 욕구(욕망)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점에서도<sup>33)</sup> 드러나지만, 『일차원적 인간』은 선진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그릇된 욕망’이 그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그리고 마르쿠제뿐만 아니라 루카치와 같은 유물론자도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자기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예둘러 표현한 바 있다.<sup>34)</sup> 그런데 마르쿠제가 이처럼 —관념론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인간 ‘내면(본성)의 해방’을 ‘최고의 목표’로 삼은 데에는 그 나름의 ‘현실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의 현실주의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해방의 역사적 주체가 기성사회의 ‘내부’에서 자란다고 이미 ‘옛날에’ 예고했지만, 현재의 선진산업자본주의는 그러한 역사적 주체가 들어설 ‘내적

31) L. 코와코프스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Main Currents of Marxism』, 변상출 역, 유로 2007, 586쪽 참조.

32) K. Marx/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Berlin 1958, S. 27.

33) EM. 24쪽 이하 참조.

34) “프롤레타리아트 의식 특유의 실천적 본질은, 즉 적절하고 진정한 의식이란 자기의 객체의 변혁, 특히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변혁을 의미한다.”(강조는 필자) G.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앞의 책, 387쪽.

공간'을 '기술적 합리성'과 물리적 힘을 통해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욕망'의 그물망으로 해방의 맹아를 아예 포섭한다. 말하자면 '총체'로서 선진산업자본주의 사회는 "주체도 객체도 압도적인 생산성의 발달을 자기의 '존재이유'로 삼게"(EM. 43)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보면, 마르쿠제의 '새로운 감성'을 통한 해방이라는 프로젝트는 유물론의 확장이자 그 현실적 실천의 구체적 대안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가 해방의 프로세스로서 "선행하는 조건의 시스템"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EM. 27)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해방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도대'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마르크스주의 해방론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면은 혁신의 대상을 '생물학적' 차원으로까지 심화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 체제의 기득권은 피착취자의 본능의 구조에서 양육되고, 억압의 지속은 단절 (...)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존 사회를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시킬 급진적인 변화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인간 존재의 차원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즉 인간이 가진 생의 필수적인 욕구와 만족이 모습을 드러내는 생물학적 차원으로까지 말이다."<sup>35)</sup>

마르쿠제 자신의 '새로운 감성'은 문화 및 문명에 대한 입장에서 그 선행이 되는 프로이트(S. Freud)나 '비판이론'의 대주자인 아도르노의 관점과도 비교된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로이트의 경우 문명발전의 지수는 억압의 '총합'과 비례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억압은 불가피하다는 염세주의(Pessimismus)를 드러내는 반면에 마르쿠제의 경우 이 법칙이 영원할 수 없다는 낙관주의(Optimismus)를 보인다. 그 긍정성의 근거로 그는

35) H. 마르쿠제: 『해방론 An Essay on Liberation』, 앞의 책, 32쪽. 물론 현실사회주의 역사에서도 인간의 본성 혹은 의식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는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마르쿠제의 해방론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봉건주의질서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의 도대 변화가 있는 다음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마르쿠제의 경우에는 선진산업자본주의의 '심장' 한가운데서 그것을 꿈꾼다는 것에 있다. 이 점에서 그의 해방 프로젝트는 또 다른 '새로운 감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새로운 감성'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억압'이 작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영구성'을 지닌다.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해방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감성은 (...) 새로운 차원을 사회적 진화의 개념들에 통합시켜 그 함축을 자유로운 사회의 가능한 구성을 위해 투영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사회는 전적으로 현존 사회들의 성과를 전제로 한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성과가 그렇다. 더 이상 착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를 멈춘다면 그것들은 지구상에서 가난과 노역을 제거하는데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이런 낙관론은 아도르노와 같은 <문화산업>의 ‘비판이론’가에게는<sup>37)</sup> 충격적일 수 있는 ‘중앙집권화’에 대한 ‘긍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일에 생산기구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조직되고 관리될 수 있다면, 그 통제가 중앙집권화 하더라도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통제는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EM. 22) 과학과 기술 문명의 진보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심지어 인간 ‘소외’의 근원이 되기도 한, 현대적 생산방식의 하나인 오토메이션(Automation)을 인정하기조차 한다. 물론 이때 “‘진보’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함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필요 노동시간이 총 시간의 단편적 시간으로 감소된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 생산이 자동화할 때, (...) 이 시점에서 기술의 진보는 필연의 왕국을 초월할 것이다. 이 기술은 자연과 사회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이용될 것이다.”(EM. 36)<sup>38)</sup>

36) H. 마르쿠제: 『해방론An Essay on Liberation』, 앞의 책, 43쪽.

37) 아도르노도 ‘기술적 합리성’을 ‘지배의 합리성’ 자체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이 ‘기술적 합리성’이 노리는 구체적 목표가 ‘중앙통제’라는 식으로 이해한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앙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는 개인들의 의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에 의해 사전에 봉쇄된다.”(M. Horkheimer/ Th.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앞의 책, 109쪽.)

38) 이 대목의 마지막 부분, 즉 “사람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대목은 마르크스가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고 인간의 ‘유적능력Gattungsvermögen’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할 때의 그것을 상기시킨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적능력의 자유로운 발현’의 그 구체적인 실현의 한 예를 꼽는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저것을, 곧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밤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K. Marx/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앞의 책, 33쪽)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학 및 기술 문명의 진보성에다가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를 덧붙인 이런 낙관적 견해를 두고 코와코프스키는 미국의 히피 이데올로그의 한 사람인 제리 루빈(J. Rubin)이 한 말, 즉 “앞으로는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 해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관념을 상기시키면서 냉소적 비판을 가한다.<sup>39)</sup> 사실 세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재의 가난과 기아, 그리고 고역의 상태는 세계의 과학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에 그 연유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코와코프스키의 이와 같은 비판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테크놀로지가 ‘과잉억압’은 말할 것도 없고 ‘필요억압’<sup>40)</sup>까지도 상당부분 해소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생존의 평화회복 *Befriedung des Dasein*”(EM. 246)<sup>41)</sup>에 기초하여 ‘능력만큼’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기술력’과 ‘필요만큼’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윤리성’이 결합된 미래의 ‘새로운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새로운 감성’에 바탕을 둔 마르쿠제의 해방의 프로젝트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배에도 억압적 지배와 해방적 지배가 있듯이, 문제는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억압’의 도구로써가 아니라 ‘해방’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일 것이다. 마르쿠제도 이 문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다. “유토피아의 가능성은 선진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술과 테크놀로지의 힘에 내재되어 있다. 세계적인 범

39) L. 코와코프스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 Main Currents of Marxism』, 앞의 책, 574쪽 참조.

40) 마르쿠제는 『충동구조와 사회 *Triebstruktur und Gesellschaft*』에서 ‘과잉억압’을 ‘부가적 억압 *zusätzliche Unterdrückung*’으로, ‘필요억압’을 ‘기본억압 *Grundunterdrückung*’으로 구분하지만, 어디까지가 ‘과잉억압’이고 어디까지가 ‘필요억압’인지 세밀히 검토하고 있지는 못하다.(H. Marcuse: *Triebstruktur und Gesellschaft*, Frankfurt/ M. 1957 참조) ‘과잉억압’과 ‘필요억압’의 개념적 구분도 중요하겠지만, 각 ‘억압’의 ‘한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본 과제의 범위뿐만 아니라 현재 필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의 ‘필연적’ 과제로 남긴다.

41)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인간』에서 ‘평화회복’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자주 사용한다. 그의 ‘평화회복’의 핵심관점에 따르면 평화회복은 ‘힘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낭비를 제거”하여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와 관계한다. EM. 253쪽 이하 참조.

위에서 이 힘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면 가난과 기근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것이다.”<sup>42)</sup> 그는 이 유토피아의 실현을 위해 “다른 목적을 바라보면서”(EM. 243) ‘일차원적 인간’을 양육하는 ‘일차원적 세계’의 “현재 방향”을 바꾸고 “생의 본능이 갖는 요구인 새로운 감성에 맞추어”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3)</sup>

그 재구성의 방법이 바로 사회구조의 미학화(Ästhetisierung)라고 할 수 있다.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인간』에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생활의 예술die Kunst des Lebens’ 개념을 확장시켜 “기술의 로고스Logos der Technik”(EM. 246)와 ‘예술적 에로스künstlerischer Eros’의 결합을 모색한다. 물론 이때 전체가 되는 것은 물질적 결핍과 빈곤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생존방식의 ‘생존투쟁Kampf ums Dasein’을 지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는 현대적 과학기술의 변증법적 지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 모순관계의 청산’이라는 고전적 형태의 정치적 투쟁방식의 지양을 함의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 문명의 생산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거기에 내장된 억압적인 ‘기술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사유와 자유로운 활동은 일차적으로 물질적 필요의 만족을 기반으로 할 때 “비억압적 승화nichtrepressive Sublimierung”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sup>44)</sup> “문명은 이성이 인식하고 변형시키는 힘에 의해, 자연을 그 자신의 잔혹성·불충분성·맹목성에서 해방하는 수단을 생산한다. (...) 이 합리성에서 기술 그 자체가 평화회복의 도구가 되고 ‘생활 예술’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 이성의 기능은 (...) ‘예술’의 기능과 합치하게 된다.”(EM. 249) 이때 그는 오늘날 선진산업자본주의가 “노예적 만족versklavende Zufriedenheit”의 동의 하에 이룩한 무정부적인 “파괴적 번영destruktiver Wohlstand”(EM, 254)을 대신하는 “중앙집권적 계획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중앙집권적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억압적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지주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에 의한 진정한 자기 결정은 필수품의 생산과 분배에

42) H. 마르쿠제: 『해방론』, 앞의 책, 14쪽.

43) 같은 책, 35쪽 참조.

44) EM. 245쪽 참조.

효과적인 사회적 통제에 의거한 것이다.”(EM. 262)<sup>45)</sup>

마르크제의 ‘중앙집권적 계획생산’ 구도도 <미적 해방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진산업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잔인한 풍요’의 생산방식을 중단하고, 사회적 필요노동을 최소화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시간을 ‘미적 환경’을 건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가진 것과 재생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소외된 노동을 통해 정제시킬 수 있는 것을 즐길 시기”<sup>46)</sup>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미적 세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 길은 기성체계를 다른 체계로 대체하는 시스템의 변동뿐만 아니라 우선 이 길을 열어나갈 “새로운 역사적 주체”(EM. 263)의 등장을 상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 체제의 욕구가 ‘생물학적’ 욕구로 전이되어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갈구하게 만들고, 이러한 갈망에 의해 안전 지향적인 보수적 욕구가 지배적인 마당에서 ‘새로운 주체’를 찾기는 쉽지 않게 마련이다.

#### IV. ‘새로운 주체’

마르크제 ‘해방론’의 프리즘을 통해 보면, 해방의 주·객관적 조건 모두가 열악할 뿐이다. 주관적 조건의 열악성은 혁명의 전통적 노동세력이 약화된

45) ‘중앙집권적 계획생산’이라는 말은 스탈린 시대를 상기시키지만, 마르크제의 이 개념에는 선진산업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방식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스탈린식 관료주의적 중앙통제도 동시에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급진주의는 중앙화된 관료주의적 공산주의 (...) 조직과도 투쟁한다. 이러한 저항에는 자발성의 (...) 강력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것은 새로운 감성, 즉 지배에 반대하는 감성의 표현이다.”(H. 마르크제: 『해방론』, 앞의 책, 133쪽) 현재 진행형인 ‘신자유주의’가 ‘억압적’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볼 때 마르크제의 이 개념은 ‘낡은’ 듯하지만 새롭기도 하다.

46) H. 마르크제: 『해방론』, 앞의 책, 135쪽. 이에 따르면, 인류는 이미 ‘과잉억압’은 말할 것도 ‘필요억압’까지 불필요하게 만들 만큼 생산력의 발전을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은 역시 ‘현명한’ 경제학자나 통계학자의 몫이 될 것 같다.

것과 관계한다. 이 약화는 노동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노동환경의 변화란 블루칼라의 감소와 화이트칼라 및 엔지니어와 전문가의 상대적 증대를 의미한다. 후자의 증대는 곧 안전 지향적인 보수적 욕구의 사회적 심화·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마르쿠제에게는 이것만이 문제인 것도 아니다. 그에게 문제는 이런 보수적인 안전 욕구의 아우라가 조직화된 노동세력의 지붕 위에도 걸쳐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세력이 선진산업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잔인한 풍요’의 물질적 세례를 실제로 받고 있어 현실생활의 ‘안전욕구’로부터 ‘일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조직화된 노동세력은 마르쿠제가 우려하듯이 체제 안정을 욕망하는 반혁명의 힘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법이다.

객관적 조건의 취약성은 대중 일반이 이미 자본의 무지갯빛 욕망에 보편적으로 몰들어 ‘일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꿈(‘불행한 의식’)도 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의식’에 빠져있는 현실의 환경에서 비롯된다. 이런 조건에서 내부 소수자의 저항은 ‘부적응’이라는 카인의 낙인을 받기 십상이다. 그리고 반자본주의와 같은 소수자의 내부 저항운동도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남긴 깊은 ‘억압’의 역사적 상처 때문에 사회주의가 매력적인 대안일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sup>47)</sup> 이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사회주의의 대응개념이 자본주의로 기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 ‘억압’ 혹은 ‘독재’로 기표되고, 반대로 자본주의 = 자유민주주의라는 착각의 함수관계가 성립되기도 한다. 이로써 자본과 노동의 현실적 대립·긴장 관계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소수의 ‘불행한 의식’에서 촉발되는 해방운동의 충격을 쉽게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된다.<sup>48)</sup> 마르쿠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사회”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끊임없이 지연될 뿐이다.<sup>49)</sup>

그러나 해방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새로운 주체’를 찾아 나서게 한다. 마르쿠제가 ‘새로운 주체’를 모색하는 그 원인의 핵

47) 같은 책, 128쪽 참조.

48) 이런 의미에서 보면, 뜻하지 않게도 그람시(A. 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ic)의 문화이론을 잘 활용하고 있는 주체는 지배체제인 셈이다.

49) 마르쿠제: 『해방론』, 앞의 책, 98쪽 참조.

심은 지배의 ‘총체성’을 드러내는 선진산업자본주의가 ‘기술적 합리성’을 동원하여 더 이상 해방의 전통적 방식과 수단이 통하지 않을 만큼 ‘진화’했으며, 한때 해방의 주체였던 ‘민중’이 자본의 물질적 세례와 ‘대의민주주의’가 뿜어내는 ‘국민주권’이라는 환상이 결합된 ‘안정적’ 틀 속에서 ‘보수화’했다는 판단이다.<sup>50)</sup> 물론 조직화된 노동계급도 ‘조직’이라는 틀에서 보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주체’를 ‘조직의 관성’에서 벗어나 ‘저항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적’ 힘의 주체에 기댄다. 이 힘의 주체는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지식인계급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과정 바깥에 존재하는” 국외자들로서 “착취당하고 박해당하는”(EM. 267) 비동일자들, 즉 ‘빈민굴’의 주민이다. 이들의 비조직성을 두고 마르크제는 이렇게 말한다. “지식인 투사는 사실상 중간 계급을 떠나 있으며 빈민굴의 주민은 조직화된 노동 계급을 떠나 있다.”<sup>51)</sup>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이 해방의 ‘촉매’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차치하고서도 그러한 ‘새로운 주체’의 관점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에 두었던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방 주체의 관점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sup>52)</sup> 전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론적 ‘일탈’을 의미하는 ‘새로운 감성’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감성’은 ‘부르주아적 퇴행’·‘귀족주의적 이데올로기’라는 해묵은 비판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하지만 마르크제 자신은 이러한 ‘새로운 감성적’ 일탈이 선진산업자본주의에서 실제로 목격되는 저항주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sup>53)</sup>

물론 이러한 반영에서 마르크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중산층의 저항이 혁명적 계급으

50) EM. 267쪽 참조.

51) 마르크제: 『해방론』, 앞의 책, 84쪽.

52) 안상헌에 따르면, 마르크제가 ‘마르크스 따라잡기와 벗어나기’에서 모두 실패하게 된 여러 원인들 중 하나는 “변혁 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명해내지” 못한 것에 있다. (안상헌: 『마르크제의 맑스 따라잡기와 벗어나기』, 『비판이론』, 문예미학 8호, 문예미학사 2001, 244쪽 참조.

53) 마르크제: 『해방론』, 앞의 책, 85쪽 참조.

로서의 프롤레타리아를 대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터무니없는 말일 것이다. 또한 룬펜 프롤레타리아트가 급진적인 정치적 세력이 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일 것이다.”<sup>54)</sup> 다만 이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이 생산과정에서 그 기본 위치나 수적 우세의 측면에서 보면 ‘즉자적으로’ 여전히 잠재적인 혁명 계급이지만 체제 안정을 욕구할 경우 ‘대자적으로’ 반혁명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런 우려는 “노동자계급은 안정된 시기에는 안정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sup>55)</sup>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해방의 ‘이행 촉매’를 ‘새로운 주체’라는 “외부로부터”<sup>56)</sup> 찾았던 것이다. 물론 이 ‘외부’에는 지식인계급과 ‘기층민중’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마르쿠제가 “계몽의 시대” · “교육의 시대” 운운하는 것을 보면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대강 짐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코와코프스키와 같은 비주류 마르크스주의자가 마르쿠제의 ‘새로운 주체’ 개념을 두고 엘리트주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라고 했던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sup>57)</sup>

그러나 이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제가 저항적 지식인과 기층 민중들을 해방의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시킨 것은 지금까지 운동의 비주류(소수자)로만 취급되어왔던 집단에 변혁의 주체 의미를 부각시킨 정치적 · 사회적 맥락을 지닐 뿐만 아니라 관성과 직접적 ‘경제투쟁’에 함몰되기 쉬운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의 운동에 ‘새로운 감성’을 새로이 각성하게 하는 역동성을 지닌다. 다만 문제는 마르쿠제가 말하는 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실현할 인간 해방의 가능성이다. 선진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이 ‘즉자적’으로는 미

54) 같은 책, 84쪽.

55) 같은 책, 87쪽.

56) “외부로부터”라는 이 말은 레닌이 했던 말, 즉 “계급의 정치의식은 오직 외부로부터, 즉 경제투쟁의 외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의 영역 밖에서”를 연상시킨다. (V. I.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Was tun?』, 김민호 역, 백두 1988, 89쪽) 그러나 마르쿠제의 ‘외부로부터’와 레닌의 그것은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즉 레닌의 ‘외부로부터’는 ‘과학’ · ‘전위대(벵가드)’ · ‘계급들 사이의 상호관계’ 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반면에 마르쿠제의 ‘외부로부터’는 앞서 말했듯이 지식인계급과 소위 ‘비주류’에 포함되는 도시 기층 민중들과 관계한다.

57) L. 코와코프스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 3권, 앞의 책, 590쪽 참조.

래 혁명의 담지자이긴 하지만 ‘대자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절망적 인식은 그의 현실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지식인 집단과 기층 민중들을 그가 꿈꾸는 ‘미적 차원’의 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혁명적 주체로 바로 줄곧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주체’도 조직화된 노동자계급 못지않게 ‘일차원적 사회’에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식인계급은 역사 진보를 추동하기도 했지만 그 반대로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함으로써 해방의 대상인 ‘권력’의 장벽을 강화하고 지속해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의 지속적 역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지식인계급의 체제 안정적 욕구는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의 그것을 초월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르쿠제가 선진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이 ‘생활의 안정’ 욕구 때문에 보수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소수자 비주류, 즉 기층 민중들 역시 그러한 기본 욕구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의 유혹에 빠지기가 한층 쉬울뿐더러 실제로 빠져온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은 눈앞의 직접적 욕구에도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할 ‘전위대’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말도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책략’에서가 아니라 처절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한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의 촉매’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규직으로의 편입’을 우선적으로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충분히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마르쿠제의 ‘새로운 주체’ 논리 일체를 묵살하거는 하지 않는다.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기존 체제가 갈망하게 하는 ‘생활의 안정’ 욕구를 ‘용감하게’ 떨쳐내야 하는 그리고 떨쳐내게 하는 ‘새로운 감성’은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에게든 ‘새로운 주체’의 계급에게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이 지배 권력의 체제와 닮은꼴로서 자기 조직의 이해만을 위해 사회적 약자로 통하는 소수자를 배제한 체제적 경직성에 의해 ‘진정한’ 해방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 지 일상적으로 반성할 때 ‘새로운 감성’을 품은 ‘새로운 주체’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탈바꿈이야말로 조직의 ‘보수성’이라는 허울을 탈피하는 계기이자 <해방의 미적 프로젝트>에 한걸음 다가서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곧 해방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사실 그 이름과 뜻이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로 확산된 기층 민중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비율의 절반 이상을 웃도는 현재의 한국 노동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해방의 주체(‘새로운 주체’)로 조직하지 않고서는 ‘해방’을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오늘 한국의 비정규직의 상황을 생각하면 반세기 전에 마르쿠제가 제기했던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주체’의 화두는 인간의 참된 해방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sup>58)</sup>

## V. 해방의 조건을 반성하며

마르쿠제가 『일차원적 인간』에서 ‘일차원의 세계’의 억압성을 고발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해방론』에서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주체’를 웅변한지도 거의 반세기가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를 돌아보면, 인류의 부단한 ‘진보’는 고사하고 ‘이차원의 세계’ 그 입구에라도 들어섰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세계는 “신이 죽었다!”는 니체(F. Nietzsche)의 냉소적 발언을 제대로 증명이나 해주는 것처럼 여전히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폭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판이다. 여기서는 불의가 정의를, 비합리성이 합리성을, 반이성이 이성을 마냥 ‘자연스럽게’ 억압하는 꼴을 취하고 있다. 그 꼴은 마치 프로이트적 실험의 세계를 방불케 한다.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판단하고 지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지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을 만큼 그 ‘관리’가 허술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방의 꿈은 항상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진행형을 완료형으로 만들어어나가는 데에는 마르쿠제가 말한 “모든 ‘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우리’와 함께 한다”<sup>59)</sup>는 ‘지울’에

58) 변상출: 『마르쿠제의 ‘새로운 감성’의 해방론』, 『아방가르드』, 현대사상 3호, 현대사상연구소 2008, 93쪽 이하 참조.

근거한 ‘협업’의 연대의식이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극복의 대상인 ‘일차원의 세계’는 ‘동일성’의 ‘육구’로 대중을 부지불식간에 무형의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연대적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무언의 강력한 억압적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반성은 타자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반성적 연대는 억압을 핵으로 하고 있는 단일화(Unififikation)나 균일화(Uniformität)가 아니라 복수(Pluralität)와 차이(Verschiedenheit)의 결합(Kombination)이어야 한다. 따라서 ‘협업’의 연대의식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중심주의’라는 배타성이다. 이런 ‘중심주의’에 사로잡힐 경우 연대의 벽은 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중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심이 없다면 해방운동의 힘은 분산되거나 개별 차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낡은 ‘중심주의’의 배타성은 지양하되 새로운 ‘협업’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심’의 분자적 네트워크의 구성<sup>60)</sup>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때 ‘중심’이 갖는 억압성을 최소화하려면 ‘소통’의 ‘일상적 민주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소통의 민주화에 근거할 때 ‘자율’은 역동성을 발휘하여 더욱 빛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원리에서는 각각의 매듭이 해방 분자의 주체가 된다. 성좌(星座)를 구성하는 이 분자들의 긴밀한 짜임관계야말로 ‘모든 나’가 위치하는 해방의 새로운 토폴로지가 되는 셈이다.

물론 해방의 토폴로지에서 ‘모든 나’가 해방의 ‘새로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차원의 세계’는 마치 ‘보호소’처럼 지정된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이 ‘자유’의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활의 안전육구’를 뺏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유혹의 부정은 현재의 ‘생활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그것까지 위협할 정도의 공포를 수반한다. 그러나 해방의 ‘새로운 감성’은 “내가 선택한 우리와 함께” 할 각오를 다질 때, 마르쿠제가

59) H. 마르쿠제, 앞의 책, 132쪽.

60) 오늘날 네트워크는 해방의 기제일 뿐만 아니라 통제의 기제이기도 하다.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탈현대의 자본주의를 ‘네트워크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 속에서도 네트워크 형태의 ‘단결’이 해방의 조건이 된다. 이런 논리는 네트워크 투쟁으로 ‘제국’에 맞설 것을 제안하는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논점과 맥을 같이한다.

구상하는 해방의 ‘미적 세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유혹한다. 이 유혹의 힘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유의 유혹에서 인류가 진보해온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인간은 ‘일차원’의 물질로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성’의 해방이라는 ‘고차원’의 꿈을 항상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한 험난한 도정이 ‘성좌’를 바라보며 ‘미적 세계’를 그리며 ‘새로운 감성’의 ‘새로운 주체들’이 걸어가야 할 해방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성좌’는 오늘도 무한한 해방을 무한히 욕망하게 한다.

## ❖ 참고 문헌

- 레닌 V. I., 『무엇을 할 것인가? Was tun?』, 김민호 역, 백두, 1988.
- 마르쿠제 H., 『해방론An Essay on Liberation』, 김택 역, 울력, 2004.
- 벤야민 W.,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1983.
- 변상출, 『마르쿠제의 ‘새로운 감성’의 해방론』, 『아방가르드』, 현대사상 3호, 현대사상연구소, 2008.
- 브라이히 A. / 렌츠 U, 『일 덜 하는 기술』, 변상출 역, 문화과학사, 2003.
- 브레히트 B., 『루카치에 대한 반론』,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역, 실천문학사, 1985.
- 코와코프스키 L.,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 변상출 역, 유로, 2007.
- 아도르노 Th. W., 『부정변증법』, 홍승용 역, 한길사, 1999.
- \_\_\_\_\_, 『美學理論』, 홍승용 역, 문학과지성사, 1985.
- 안상현, 『마르쿠제의 맑스 따라잡기와 벗어나기』, 『비판이론』, 문예미학 8호, 문예미학사, 2001.
- 알리 T. / 왓킨슨 S.,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안찬수/ 강정석 역, 삼인, 2001.
- Brunkhorst H., Marcuse zur Einführung, Junius 1990.
- Friedell E., Kulturgeschichte der Neuzeit, München 1960.

- Hegel G. W. 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Werke 3, Frankfurt/ M. 1970.
- Horkheimer M. / Adorno Th. W.,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M. 1969.
- Kafka F., Der Prozeß, Frankfurt/ M. 1946.
- Lafargue P., Das Recht auf Faulheit, Berlin 1991.
- Lukács G., Die Theorie des Romans, Darmstadt/ Neuwied 1971.
- \_\_\_\_\_, Schriften zur Ideologie und Politik, Peter Ludz(Hrsg.), Darmstadt/ Neuwied 1967.
- \_\_\_\_\_,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Darmstadt/ Neuwied 1977.
- Marcuse H., Triebstruktur und Gesellschaft, Frankfurt/ M. 1957.
- \_\_\_\_\_, Der eindimensionale Mensch, Neuwied/ Berlin 1967.
- Marx K. / Engels F.,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Berlin 1958.
- Marx K., Das Kapital, MEW 23, Berlin 1987.
- Schmidt B., Postmoderne-Strategien des Vergessens, Darmstadt/ Neuwied 1986.

❖ Zusammenfassung

## H. Marcuse - Sein ästhetisches Projekt zur humanistischen Emanzipation

Byeun, Sang Chul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ist zu zeigen, dass das ästhetische Projekt der humanistischen Emanzipation von Herbert Marcuse noch aktuelle Bedeutung hat. Marcuse hat die fortgeschrittene(hochentwickelte) Industriegesellschaft als eine eindimensionale Gesellschaft bezeichnet. Jene Gesellschaft sei nur eine Gesellschaft ohne Opposition und bringe ein eindimensionales Denken hervor. Das eindimensionale Denken mache wiederum den Menschen eindimensional. Daraus befestige sich das unterdrückende System der Gesellschaft, und hier sei gar keinen Ausweg aus dem verstrickten Zustand zu finden.

Von diesem Gesichtspunkt aus appelliert Marcuse an uns, ein neues Empfinden zu haben. Neues Empfinden bedeutet die Ersetzung der falschen Bedürfnisse durch wahre und den Verzicht auf repressive Befriedigung. Die meisten der herrschenden Bedürfnisse —sich im Einklang mit der Reklame zu entspannen (dem Diktat der Reklame zu gehorchen), zu vergnügen, zu benehmen und zu konsumieren, zu hassen und zu lieben, was andere hassen und lieben— gehören zur Kategorie der falschen Bedürfnisse.

Um eine schöne Welt aufzubauen, sucht Marcuse nach neuen Subjekten, zu denen nicht nur die Intellektuellen, sondern auch die ausgebeuteten und verarmten Randgruppen gehören. Indessen blickt Marcuse mißtrauisch auf die bestehenden Arbeiterorganisationen. Sie neigen sich, so Marcuse, zu einer konservativen Haltung, weil Ihre Bedürfnisse stark nach der Lebenssicherung gerichtet sind.

Meiner Ansicht nach faßt Marcuses Emanzipationstheorie zwei Ziele ins Auge: Das eine ist in Bezug darauf, daß man neues anderes Empfinden als das beherrschende haben müßte. Und das andere ist die Ästhetisierung der Welt. Die Ästhetisierung der Welt bedeutet das optimale Ziel seines Projekts zur humanistischen Emanzipation. Die Möglichkeit der Verwirklichung solches Traums ist leider noch offen für uns alle.

---

**Key Words**

해방, 미학화, 새로운 감성, 주체, 일차원적 인간, 물신숭배, 사물화

Emanzipation, Ästhetisierung, Neues Empfinden, Subjekt, Der eindimensionale Mensch, Fetschismus, Verdinglichung

논문접수일: 2009. 11. 10.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